

“생활 공연 많이 펼쳐 대중과 친해져야죠”

손희숙 작가 ‘염원의 선율’ 개인전 3월 17일까지 곡성 아산조방원미술관

2021 새로운 출발

부모 모두 국악인...대학선 대금 전공 풍류회 죽선방 결성 계기 생활과 인연 배울곳 없어 서울 오가며 레슨 받아 “다양한 장르 협업...연주 앨범 발매”

‘생활’ 이름부터 낯설다. 생활은 한국 전통 관악기로 국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다.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조선시대 풍류객이 즐겨 연주했으며 옛 문헌이나 그림 속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영화 ‘사도’(2014)에 삽입된 신비롭고 단아한 소리의 생활 연주는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기도 했다.

꾸준히 생활을 연주하며 그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연주자가 있다. 광주 유일의 생활 연주자 신선민(31)씨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연습실에서 신 씨를 만났다. 원광대 국악과 박사과정을 밟으며 현재 논문을 쓰고 있다는 그녀는 “생활은 보편화되지 않아 중국 악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생활만의 매력적인 소리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악인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국악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그녀의 아버지 신경환씨는 국립국악원 출신으로 내뽀소리민족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머니 최광자씨는 대금을 전공,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지금은 대금연주단예술팀 단원으로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2살 때부터 대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장구, 설장구, 판소리 등 여러가지를 조금씩 배웠죠.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국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 씨는 광주예고,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금을 전공한 그녀는 대금연주단예술림, 사)내뽀소리민족예술단, 풍류회 죽선방, 창작국악그룹 그루 등 다양한 국악연주단체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대금 연주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런 그가 어떻게 생활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신 씨가 생활을 접한 것은 불과 6년 전이다. 중요무형문화재이자 대금 정

〈8〉 광주 유일 생활 연주자 신선민



광주 유일의 생활 연주자 신선민씨

악 보유자인 조창훈 선생이 풍류 음악 부흥과 보급을 위해 ‘풍류회 죽선방 결성’을 제안하면서 그녀에게 생활 연주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온 것이다.

“생활은 그저 이름만 들어본 악기 중 하나였어요. 막연히 ‘언젠가 생활 연주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조창훈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악기 가격도 비싸고, 광주에는 생활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배워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 덕에 지금까지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 씨는 2015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새벽 5시면 한 시간 레슨을 받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2018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를 준비할 때는 일주일에 두번씩 서울을 찾았다. 그렇게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전까지 약 4년간 서울로 왔다갔다 하며 생활을 배웠다.

생활은 어떤 악기일까. 신 씨는 “생활은 봉황의 날갯짓 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박 속에 관을 꽂아 만든 악기다”며 “하모니카처럼 들숨과 날숨을 이용해 연주하는 악기”라고 설명했다.

생활은 17관, 24관, 36관 세 종류가 주로 사용되는데, 관이 많아질수록 무거워지고 연주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음색이 곱고 아름다워 합주에 자주 쓰이며 화려하면서도 소박하고 따뜻한 소리를 내 매력도 많다.

“국악기이지만 현대적인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사용되고 매니아 층도 두터워요.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생활이 다른 전통악기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조선시대 전장을 겪으며 그 맥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생활 연주가 부활한지는 20년도 채 안됐어요. 광주에서는 생활 연주를 쉽게 접할 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 씨는 2019년 약 세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소쇄원에서 관객들을 대상으로 생활을 소개하고, 연주를 선보였던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한다. 신 씨는 “이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기에 생활을 더욱더 알리는데 힘쓰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의 올해 가장 큰 목표는 박사과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이후 생활 연주를 녹음해 앨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생활 연주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앨범도 준비하고 있어요. 연습실 안에 녹음실도 마련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치유의 기원을 담은 우리 소리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도 펼칠 예정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생활을 연주하다 보면 좀더 대중들과 친해지지 않을까요.(웃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오랫동안 불교미술에 전착해 온 손희숙 작가 두번째 개인전이 오는 3월 17일까지 곡성 아산조방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염원의 선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손 작가는 지금까지 꾸준히 작업해온 탕화와 함께 새롭게 시도한 페이퍼 아트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불교미술과 전통미술에 관심을 가져온 손 작가는 탕화 등 불화와 민화를 통해 다양한 채색과 기법을 연구했고, 이번에 좀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페이퍼 아트 작품을 제작했다.

페이퍼아트는 붓을 사용하지 않고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 종이를 정교하게 오리고 붙이고를 반복, 화면을 장악하고 완성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붓으로 그린 그림보다 더 정교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교차한다.

전시작 중 천수천안(千手千眼)에 드러난 손동작과 손 위의 제물은 현대인의 복잡한 삶과 다양한 모습을 환원해 보여주고 천수천안관음보살 42수(手)는 각각의 손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목포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손 작가는 한국미협, 광주여류한국화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담양 연동사 신중탱화를 비롯해 여러 사찰의 탕화 작업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염원’

하반기 전시지원공모전 작가 모집

광주문화예술회관, 3월 12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2021 하반기 전시지원공모전에 참여할 작가 및 미술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광주·전남 미술현장에서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고, 실험성과 창의성을 갖춘 작가 및 미술단체에게 전시 발표 기회를 제공, 지역 미술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상반기 공모에는 전우회, www.현대미술회, 전예공예가회, 정재석(서예), 서미라(회화) 등 5팀(명)이 선정됐다.

하반기 공모는 미술단체 2팀, 개인(작가) 3명을 선정하며,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 기준은 단체는 창단 1년 이상, 기획, 정기전 등 3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작가)은 개인전 2회 이상, 장르 제한 없이 시각예술 전 분야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단체 및 작가는 갤러리 무료대관 및 전시홍보, 작품전시 등을 지원받는다. 참여자는 광주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포트폴리오(또는 최근 3년 이내 도록)와 함께 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의 서사

김경희 장편 ‘오래된 정원에 꽃이 피네’

소설이란 ‘경험의 변형’이자 ‘경험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법박하게 말한다면 작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존재다.

부안 출신 김경희 소설가의 장편 ‘오래된 정원에 꽃이 피네’(문학들)는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의 서사로 압축된다.

소설의 주인공은 지숙이다. 그녀에게는 아주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아픔이 있다. 어머니 박 씨는 흔레 첫날밤을 치르던 날 신랑의 기침 소리가 잦다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그

러나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지병으로 죽자 박 씨는 그 집 며느리가 아닌 ‘종’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친정에서도 버려지다시피 시집간 신세였다.

지숙의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풍파와 맞서야 했다. 지숙은 그런 틈바구니에서 고속에 문한다.

소설을 관통하는 중심 서사는 아버지의 부재와 그로 인한 고통이다. 생계를 위해 딸을 돌보지 못한 어머니의 여유 없는 삶은 고스란히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숙에게 드리워진 ‘어머니와 닮고 싶지 않다는 것’은 ‘어머니를 인정하고 싶지 않음 심리’와 동일하다.



결국 지숙은 자궁 적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녀의 삶과 겹쳐진 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를 준다. ‘천왕문’, ‘불이문’은 속(俗)의 영역에서 성(聖)의 영역으로 들어가 자신의 고통과 직면하는 길이다.

김영상 문학평론가는 “김경희 소설에서 자기 치유의 진정성은 성과 속의 경계에 ‘문 없는 문’을 배치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 또는 기억과 상처 사이의 경계를 지워 버린 데에 있다”고 평한다.

한편 김 작가는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광주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새들 날아오르다’, ‘켄타우로스, 날다’를 펴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